도로 제설용 염화칼슘 사용 확대

도로공사, 모래퇴적 방지 위해 습염살포식 전환 ... 한해 47억원 절감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되던 모래가 완전히 사라지고 염화칼슘에 적신 소금으로 대체된다.

한국도로공사 경남지사에 따르면, 고속도로 제설작업에 사용되던 모래가 배수로를 막는 등 부작용이 많아 2004년 겨울부터는 소금과 염화칼슘 용액을 이용해 눈을 제거하는 습염 살포식 방법으로 전환기로 했다.

전국 고속도로에 동시에 적용되는 습염 살포식은 소금을 30% 정도 농도의 액체 염화칼슘에 적셔서 고속도로 노면에 뿌리는 것으로 신속하게 눈을 녹이는 액체 염화칼슘의 특성과 지속성이 우수한 소금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선진국형이다.

특히, 제설작업이 종전보다 1.5배 가량 빨라지고 한번에 살포할 수 있는 거리도 3배 이상 연장돼 경비절감액이 전국적으로 한해 47억원 가량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습염살포식은 2000년부터 서울 외곽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에서 시험 운영돼 왔고 경남지역에서는 2003년 산청 등 일부 폭설 예상지역에서 도입된 바 있다.

기존 모래 살포식은 사용된 모래가 갓길이나 중앙분리대에 쌓여 배수로를 막거나 미끄럼 사고를 유발하는데다 수거에 많은 인력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화학저널 2004/11/30>